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값인하조정신청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25일 오후 10:45

올해초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값이 1년에 4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약가협상당시 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토록 비싼 약값의 기준이 무엇인지 복지부에 물었는데, 돌아온 답은 '약값은 신만이 알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약회사가 부르는 값이 약값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약가제도는 제약회사가 원하는대로 약값을 쳐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public_access&nid=47608

이에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6월 4일에 스프라이셀, 글리벡 약값인하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스프라이셀 약값인하근거: 스프라이셀 1정당 가격은 55000원. 생산단가를 추정해보니 1890원. 즉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초국적제약회사 BMS 에게 1정당 53000원의 순익을 보장해주는 셈. 따라서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가의 10배를 쳐준다하더라도 18900원을 넘을 수는 없음.

@글리벡 약값인하근거: 2001년부터 1년반에 걸친 백혈병환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03년초에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요구한 약값을 수용하여 1정당 23045원으로 결정(1년에 3360만원~8400만원). 노바티스는 1년 8개월만에 그들이 주장한 글리벡의 연구개발비를 초과회수하였음. 글리벡의 생산단가는 760원임. 그리고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가격과 비교하면 글리벡 1정당 13768원임.

그러나 6월 4일로부터 110일이 넘도록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조정신청 자격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으로 다시 신청서를 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6월 4일 신청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글리벡을 판매하는 노바티스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자격이 없다'는 공문을 복지부에 낸 후에 초래된 일입니다. 노바티스가 트집을 잡고, 이에 눈치를 보고 장단을 맞춰준 복지부의 태도나 정책도 문제이고, 약가조정이 지연되는 동안 111일동안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피해액도 문제입니다. 글리벡 원가기준으로 조정했다면 약 225억원, 대만약값을 기준으로 조정했다면 약 9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아낄수가 있었는데, 고스란히 제약회사의 이윤으로 퍼준 꼴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조정을 시급히 재촉하였습니다.

글리벡 약가인하조정신청에 175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에 146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 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지난 6월 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신청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섰다. 약가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고, 얼마 전 신청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를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 자격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제약회사 눈치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노바티스 사에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장단에 맞춰 !! 춤춘 결과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건강과 이해가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가인하조정을 미룬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서류 미비 때문이건, 노바티스에서 문제를 삼았다던 자격 조건 문제이건 간에 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지 문제이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여 기껏 검토한 것이 '신청서의 서류 미비'란 말인가.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격심사로 인해 허비한 111일 동안 노바티스가 벌어들인 초과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글리벡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글리벡 예상 사용량은 매년 평균 32%씩 증가해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예상사용량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 약제상한금액과 조정신청가로 계산해 본 결과, 111일 동안의 재정피해액, 즉 노바티스의 초과이윤은 원가기준으로 조정시 약 225억원, 대만약가 기준으로 조정시 약 93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떠들어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눈치만 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환자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결단코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난 10여일 동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연서를 받아 다시 조정신청을 내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산정된 글리벡 가격과 그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스프라이셀 약값을 생산원가 혹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것이다. 여기 신청자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불리기에 우리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값을 내리라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자 일동